



No. 2022-237
품목 새송이버섯(큰느타리)(King oyster mushroom)
HS CODE 0709.59.4010
국가 호주(Australia)



C.O.N.T.E.N.T.S

I	시장 현황 및 통계	3
	1. 시장 규모 2. 수출입 통계	
II	트렌드	13
	1. 식문화 및 소비 트렌드 2. 유통 및 제품 트렌드 3. 정책 및 규제	
III	유통	26
	1. 유통구조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IV	통관 및 제도	35
	1. 통관 및 검역 2. 인증 3. 라벨링 4. 위생 요건	
V	시사점	57
	1. 수출 확대 방안	

I

시장 현황 및 통계



01 시장 규모

신선 식품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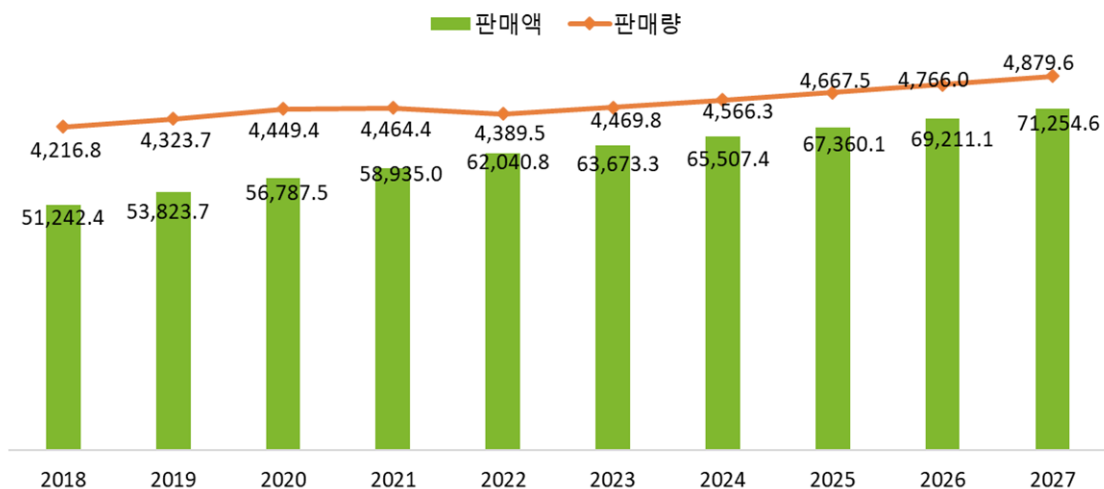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22년 호주 신선 식품 시장 규모는 소매 판매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620억 4,080만 호주 달러(54조 6,157억 원)를 기록했으나,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438만 9,500톤에 그침. 2021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신선 식품 시장의 공급에도 차질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서 신선 식품 제품의 단가는 상승하여 시장 규모는 확대된 것으로 보임.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호주 신선 식품의 판매액 및 판매량 시장 규모는 각각 연평균 4.9%, 1.0% 증가하며 꾸준히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2022년 판매액 기준으로 신선 야채 시장이 전체 신선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를 차지함

신선 식품 시장은 판매액 기준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2.9% 성장하여 2027년 기준으로는 712억 5,460만 호주 달러(62조 7,268억 원)의 시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량 기준으로는 연평균 2.2% 증가하여 487만 9,600톤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신선식품 시장 규모 및 전망(2018-2027년)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천 톤)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22년 판매액 기준으로 신선 버섯 제품이 속한 기타 야채류 시장은 전체의 76.9%를 차지함. 이어서 토마토(13.1%), 양파(4.4%), 콜리플라워 및 브로콜리(4.1%), 옥수수(1.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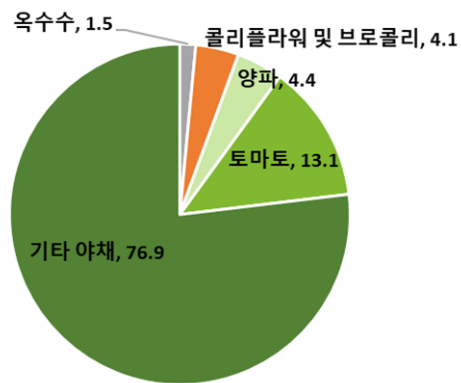
- 전체 신선 야채 시장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5.1%)를 상회하는 품목은 양파(6.7%)와 기타 야채(5.2%)임



표 2

신선 야채 유형별 점유율 (2022년)

(단위: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021년 호주 신선 야채 시장 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148억 8,170만 호주 달러(13조 1,007억 원)를 기록했으며, 2022년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157억 950만 호주 달러(13조 8,294억 원)를 기록함. 2021년 신선 야채 시장의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6% 감소를 기록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침

-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신선 야채 시장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서 판매량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2021년 여름 퀘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식량 공급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서 2022년 호주 내 신선 야채 제품 단가는 더욱 증가하게 되어 2022년 신선 야채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3

신선 야채 시장 규모 및 전망(2018-2027년)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천 톤)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기타 야채의 판매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5.2%를 나타내며 120억 8,770만 호주 달러(10조 6,410억 원)를 기록했으며, 판매량은 0.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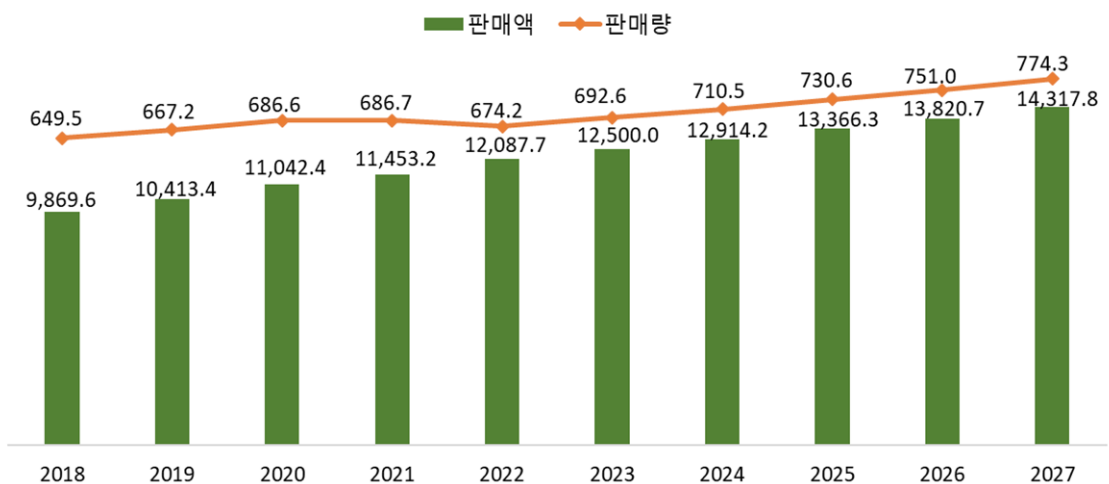
2022년 이후 향후 5년간 기타 야채의 판매액과 판매량은 각각 연평균 3.5%, 2.8%로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2027년 기준으로 판매액 143억 1,780만 호주 달러(12조 6,042억 원) 판매량 77만 4,3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기타 야채 시장 규모 및 전망(2018-2027년)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천 톤)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생산 현황

호주 통계청(ABS) 및 FA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호주의 버섯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2% 감소한 4만 2,526톤으로 집계됨. 2017년 이후 호주 내 버섯 생산량은 증감을 반복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0% 감소를 기록함. KATI에 따르면, 버섯 생산량 감소는 노동 인력 총원 차질에 기인함

호주에서도 비건, 건강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버섯이 최근에는 육류 대체식품 및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버섯의 효능이 입증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버섯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식품 기업들은 신선 버섯을 재료로 넣어서 만든 즉석식품, 밀키트 제품을 선보이는 등 향후에도 호주 시장에서 신선 버섯의 수요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표 5

버섯 생산량 현황(2017-2021년)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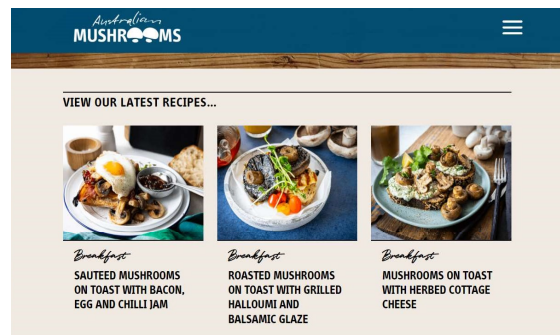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 /2020	연평균 성장률
생산량	46,326	51,222	48,680	48,974	42,526	-13.2	-2.1

자료: 호주 통계청(ABS), FAO



표 6

버섯을 활용한 건강식 레시피 소개

자료: australianmushrooms.com.au

신선 버섯은 셰프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 호주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버섯의 품종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호주에서도 새송이버섯 및 팽이버섯 품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새송이버섯 제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로 아시아 요리의 볶음 요리, 면요리, 수프 등에 사용되는 버섯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7 호주에서 생산되는 신선 버섯 품종 및 특징

이미지				
품종명	Button Mushrooms	White Mushroom Cups	Flat Mushrooms	Swiss Brown
특징	식용으로 쓰이며, 크기가 가장 작은 하얀버섯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버섯	크기가 크고 하얀 버섯으로 굽거나 BBQ용으로 사용됨	강한 풍미를 갖고 있는 버섯으로, 주로 스투 및 슬로우 쿡 레시피에 사용됨
이미지				
품종명	Portobello	King Trumpet	Oyster Mushrooms	Enoki Mushrooms
특징	크기가 크고 색깔은 검은 것이 특징인 버섯	새송이버섯으로 주로 아시아 요리의 볶음요리, 면요리, 수프 등에 사용되는 버섯	느타리버섯으로,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으나, 풍미가 강함	팽이버섯으로, 얇은 가닥의 버섯 형태를 띠
이미지				
품종명	Shiitake	Shimeji		
특징	표고버섯으로, 버섯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임. 단단한 식감으로 얇게 썰어서 구운 후 '비건 스테이크' 대용으로 애용됨	느티만가닥 버섯으로, 키가 크고 작은 버섯들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		

자료: australianmushroomgrowers.com.au

02 수출입 통계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음

HS CODE 0709

-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CODE 0709.59

- 기타

HS CODE 0709.59.4010

- 큰느타리버섯

국가별 HS CODE

- 글로벌: 0709.59
- 호주: 0709.59
- 한국: 0709.59.4010

글로벌 수입 규모

2021년 글로벌 큰스타리버섯(HS CODE 0709.59) 수입 규모는 9억 1,139만 달러를 기록함. 최대 수입국은 독일로 전체 비중의 10.9%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프랑스(10.4%), 이탈리아(8.8%), 영국(8.0%), 미국(6.8%) 순을 기록함

한국은 수입국 중에서 14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기준 수입 규모는 약 2,044만 9,00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 수입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호주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6.2% 성장해 2021년 약 1,047만 달러를 기록함

표 8 큰스타리버섯 글로벌 수입 규모(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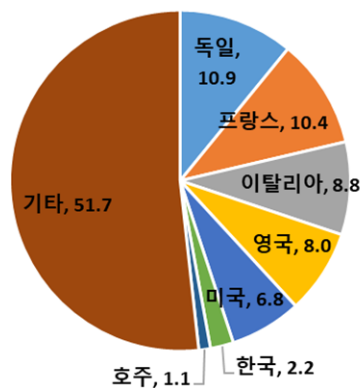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754,221	859,021	867,900	792,636	911,395	4.8
1 독일	102,172	104,390	107,137	101,723	99,668	-0.6
2 프랑스	73,355	87,205	90,208	93,765	94,984	6.7
3 이탈리아	68,753	73,328	86,912	63,369	80,419	4.0
4 영국	44,300	63,527	64,376	55,390	72,876	13.3
5 미국	45,087	49,651	52,841	42,013	61,608	8.1
14 한국	21,208	25,497	21,424	17,021	20,449	-0.9
20 호주	8,225	9,135	9,680	9,477	10,470	6.2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표 9 글로벌 큰스타리버섯 국가별 수입 비중(2021년)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호주 수입 규모

2021년 호주의 큰노타리버섯(HS CODE 0709.59) 수입 규모는 對한국 수입액이 826만 6,000달러로 전체의 78.9%의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중국(17.0%), 스페인(1.6%), 크로아티아(1.2%), 이탈리아(1.2%) 순을 기록함

- 호주 내 큰노타리버섯 상위 2개 수입국인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함


호주 큰노타리버섯 수입 시장 내 對한국 수입 규모는 2017년 수입액 611만 4,000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7.8%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2021년 기준 826만 6,000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국 중에서 1위를 기록함

 표 10 호주 큰노타리버섯 수입 규모(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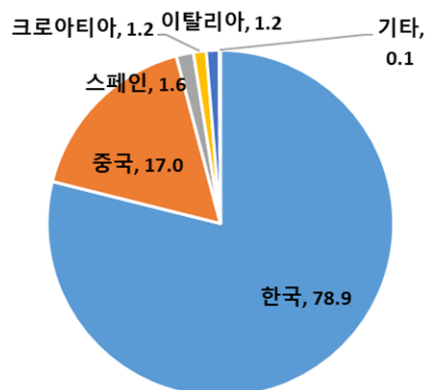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8,225	9,135	9,680	9,477	10,470	6.2
1 한국	6,114	7,055	7,600	7,532	8,266	7.8
2 중국	1,768	1,851	1,804	1,577	1,784	0.2
3 스페인	102	36	123	44	164	12.6
4 크로아티아	-	30	2	21	126	-
5 이탈리아	59	55	17	211	124	20.4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표 11 호주 큰노타리버섯 국가별 수입 비중(2021년)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한국 수출 규모

2021년 한국의 큰노타리버섯(HS CODE 0709.59.4010) 수출 규모는 2,650만 1,000달러, 수출량은 6,726톤을 기록함

- 최근 5년간(2017-2021년) 수출액은 연평균 8.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코로나 이후 2020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6% 감소하며 수출액 2,586만 7,000달러를 기록했으나, 2021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며 반등함. 한편, 수출량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7% 증가하며 확대되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수출량 또한 전년 대비 3.9% 감소를 기록함. 2021년에도 수출량은 전년 대비 7.8% 감소를 나타냈으나, 수출액 기준으로는 증가(2.5%)한 것을 보면 큰노타리버섯 수출 단가의 증가로 수출액이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판단됨

2021년 한국의 對호주 큰노타리버섯 수출액은 441만 4,000달러, 수출량은 1,353톤을 기록함

- 최근 5년간 수출액은 연평균 10.4% 증가를 기록하며 수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2020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394만 3,000달러가 수출됨.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0% 증가를 나타내며 반등함. 수출량 기준으로는 최근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11.2% 증가를 나타내며 꾸준히 수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도 수출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를 기록했는데, 2020년 수출액 기준 감소를 기록한 원인은 호주로의 느타리버섯 단가 하락인 것으로 보임



표 12

한국의 對글로벌 및 對호주 큰노타리버섯 수출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對 글로벌	수출액 (YoY)	19,246	23,497	26,297	25,867	26,501	8.3
		12.1	22.1	11.9	-1.6	2.5	-
	수출량 (YoY)	5,597	6,578	7,584	7,292	6,726	4.7
		10.0	17.5	15.3	-3.9	-7.8	-
對 호주	수출액 (YoY)	2,972	3,531	3,975	3,943	4,414	10.4
		20.3	18.8	12.6	-0.8	12.0	-
	수출량 (YoY)	885	1,056	1,225	1,250	1,353	11.2
		21.7	19.3	15.9	2.1	8.2	-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II

트렌드



01

식문화 및 소비 트렌드

버섯에 대한 관심 증가

코로나19 이후 호주에서도 지속가능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버섯이 관심을 끌고 있음. 지속가능한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탄소발자국이 낮은 '식물성 식단'이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서, 버섯이 주요 식재료로 주목을 받으며 2022년 식품 트렌드로 선정되기도 함

버섯 식문화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버섯은 양송이버섯으로, 주로 피자 및 파스타 요리에 곁들여서 섭취하거나 갈아서 수프 등으로 섭취함

- 이 외에도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목이버섯 등 다양한 버섯을 식용으로 섭취하고 있는데, 새송이버섯 및 팽이버섯은 호주에서는 이국적인 식재료로 인식됨
- 버섯의 새로운 식감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면서, 건강하면서도 이색적인 버섯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호주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대부분 양송이버섯종이 다수이지만, 최근에는 외래종을 재배하는 농장이 증가하고 있음

양송이버섯을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는 갈아서 만든 스프, 양송이를 첨가한 피자 토스트, 버섯 파스타, 버섯 피자, 버섯 샌드위치, 버섯 샐러드, 치즈 버섯 퀘사디아, 버섯 나초, 버섯 마살라, 버섯 만둣국, 버섯 스시롤, 버섯 크래커, 버섯 아란치니, 버섯 샐러드 등 매우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음



표 13

양송이버섯을 활용한 레시피



Mushroom Pizza Toast



Creamy Mushroom Soup



Mushroom Dumpling Soup

피자 토스트

크리미 버섯 스프

만둣국

자료: australianmushroomgrowers.com.au

새송이버섯 및 팽이버섯의 경우에는 이국적인 식재료로 활용되거나, SNS에서 유행하는 레시피를 참고해서 조리하는 경향을 보임. 새송이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프렌치와 같은 이국적인 요리에 활용해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호주 공영 방송국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웹사이트에서는 와인소스를 곁들여서 구운 새송이버섯 요리, 아침 대용으로 만들 수 있는 새송이버섯을 곁들인 토스트의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음. 팽이버섯을 활용한 레시피에는 버섯 타르트 등이 있음



표 14

호주 방송에서 소개된 새송이버섯·팽이버섯 활용 요리

와인소스로 구운
새송이버섯/프랑스 요리새송이버섯을 곁들인
토스트/프랑스 요리

Mushroom Tart

팽이버섯이 들어간 버섯 타르트

자료: sbs.com.au, australianmushroomgrowers.com.au



표 15

호주의 식품 언플루언서가 게시한 새송이버섯 레시피 영상



자료: KATI

02 유통 및 제품 트렌드

호주산 버섯 판매 현황

주요 슈퍼마켓과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섯 제품은 양송이버섯이 주를 이루고 있음

양송이버섯 이외에도, 자국산 표고버섯도 유통되고 있으며,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혼합 제품도 판매되고 있음

- 호주산 새송이버섯 혼합 제품은 'Exotic Mushroom'이라고 제품을 소개하고 있어서, 새송이버섯 제품이 이국적인 버섯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신선 버섯이 유통되는 형태는 원물 그대로 또는 슬라이스된 형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랩으로 포장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100g당 가격 단가는 표고버섯(6.00호주 달러/약 5,280원)가 양송이버섯(2.25호주 달러/약 1,980원)보다 약 2.7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됨

-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이 포함된 버섯 혼합 제품인 Country Fresh Exotic Mushroom Risotto Mix의 100g당 단가는 4.00호주 달러/약 3,520원)로 표고버섯보다는 저렴하며, 양송이버섯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음



표 16

호주산 양송이버섯 제품 상세

이미지			
원산지	호주	호주	호주
제품명	Woolworths Mushrooms Button 200g Punnet	Woolworths Mushrooms Shiitake 100g Punnet	Country Fresh Exotic Mushroom Risotto Mix 150g
브랜드	Woolworths	Woolworths	Countryfreshmushrooms
가격	4.50호주 달러(약 3,960원)	6.00호주 달러(약 5,280원)	6.00호주 달러(약 5,280원)
중량	200g	100g	150g
이미지			
원산지	호주	호주	호주
제품명	Mushroom Button 500g Pack	Mushroom Gourmet 250g	Mushroom Oyster 400g
브랜드	N/A	Choi's Mushroom	Choi's Mushroom
가격	7.50호주 달러(약 6,600원)	7.30호주 달러(약 6,430원)	7.50호주 달러(약 6,600원)
중량	500g	250g	400g

자료: www.woolworths.com.au, www.asiangroceronline.com.au

수입산 판매 현황

온라인 아시안 식료품 유통채널 및 브리즈번 온라인 한인마트 유통채널에서 판매 중인 버섯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입산 팽이버섯, 미니 새송이버섯을 포함한 새송이 버섯 등의 신선 버섯과 말린 표고버섯 제품이 유통 중인 것을 확인함

팽이버섯은 중국산, 한국산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2023년 2월 기준, 한국산 팽이버섯이 2.99호주 달러(약 2,630원)인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어서 100g당 단가는 한국산(0.83호주 달러/약 730원)이 중국산(0.93호주 달러/약 820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됨

새송이버섯의 원산지는 모두 한국산인데, 한국산 브랜드의 새송이버섯 100g당 단가는 1.38호주 달러(약 1,215원)이며, 다른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g당 단가는 1.45호주 달러(약 1,280원)로, 한국산 새송이버섯 제품의 100g당 단가는 약 1.40호주 달러(약 1,230원)로 파악됨

- 한국산 미니 새송이버섯의 100g당 단가는 1.58호주 달러(약 1,390원)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미니 새송이버섯 제품의 100g당 단위 가격이 새송이버섯 제품보다 약 0.18호주 달러(약 160원)가 높음

한편, 신선 버섯 제품 이외에 말린 버섯 제품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한국산 말린 썰은 표고버섯 제품은 70g 용량에 16.35호주 달러(약 1만 4,390원)로 판매되고 있어서, 100g당 단위 가격은 가공 버섯 제품이 신선 제품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음



표 17

수입산 버섯 상세

이미지			
원산지	중국	한국	한국
제품명	Mushroom Enoki 300g	Mushroom King Oyster 400g	머쉬킹 미니 새송이 버섯 300g
브랜드	N/A	통째로 새송이	머쉬킹
가격	2.80호주 달러(약 2,465원)	5.50호주 달러(약 4,840원)	4.75호주 달러(약 4,180원)
중량	300g	400g	300g
이미지			
원산지	한국	한국	한국
제품명	머쉬킹 팽이버섯 360g	머쉬킹 새송이버섯 400g	썰은 표고채
브랜드	머쉬킹	머쉬킹	용인유통
가격	할인가: 2.99호주 달러 (약 2,630원) 원가: 3.50호주 달러 (약 3,080원)	5.80호주 달러 (약 5,100원)	16.35호주 달러 (약 1만 4,390원)
중량	360g	400g	70g

자료: www.asiangroceronline.com.au, metroimall.com

빅데이터 분석

호주 내 웹트래픽 수가 높은 아마존에서 느타리버섯(Oyster mushroom)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분석의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순임
- 수집 항목은 제품 소개란(성분, 홍보 문구), 소비자 반응(리뷰)이며 총 수집 건수는 제품 92건, 소비자 반응 891건임

1. 제품 특성 주요 키워드 추출

느타리버섯 제품 소개 출현 단어빈도는 건강한 39건, 분말 33건 원료 28건이며 다른 주요 단어 들로는 양질의, 활기, 면역, 보충, 품질보증서, 기능, 이익이 출현함. 분말 상태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식품인 만큼 품질 관련된 단어도 빈번하게 나타남



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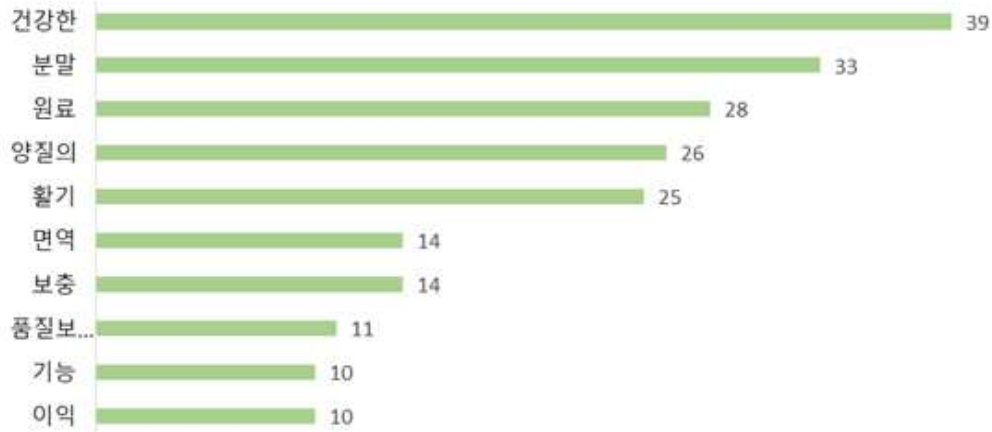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순위	출현단어	출현빈도
1	건강한	39
2	분말	33
3	원료	28
4	양질의	26
5	활기	25
6	보충	14
7	면역	14
8	품질보증서	11
9	이익	10
10	기능	10



표 19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2. 동시출현단어 분석

동시출현단어 출현 빈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느타리버섯 제품 소개 시 가장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양질의 성분임. 그 뒤로는 품질보증서, 원산지, 제품의 질, 이상적인 식사, 식약처, 에너지 상승, 가벼운 식사, 염증, 면역 등이 나타남. 건강식인 만큼 제품의 상태 및 품질을 신경 많이 쓰는 것으로 보임



표 20

제품 특성 연관단어 출현 빈도

순위	연관단어	빈도
1	양질의, 성분	9
2	품질보증서	7
3	원산지 표시	5
4	제품의 품질	4
5	이상적인, 식사	3
6	식품의약국, 기관	3
7	에너지 상승	3
8	가벼운 식사	2
9	염증, 면역	2
10	버섯 농장	1

3. 리뷰 출현 단어 분석

느타리버섯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리뷰에서는 분말 가루의 언급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양질의, 혈압, 보충, 부작용, 미고랭, 아침 음료 등이 도출됨. 건강을 위해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이지만, 다양한 음식과 조합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음



표 21

소비자 반응 연관단어 키워드 빈도

순위	연관단어	빈도
1	버섯 분말가루	16
2	양질의 제품	10
3	혈압	10
4	육중한, 보충	7
5	부작용	6
6	양질의 보충	5
7	미고령	4
8	아침 음료	4

03 정책 및 규제

검역 타결 현황 - 버섯

호주로의 수출이 가능한 신선 농산물 품목에는 곡류, 과실류, 채소류, 종자류, 버섯류, 절화류, 화훼류 기타 등이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만가닥, 목이, 흰목이 버섯류는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며, 버섯류인 느티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은 호주로의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임



표 22

호주로 수출이 가능한 신선 농산물 품목

수출가능 품목	곡류	백미, 보리, 밀, 수수, 콩, 강낭콩, 팥, 녹두 - 흙, 잡초, 벌씨 등이 없어야 하며, 깨끗하게 도정되어야 함
	과실류	배(하동, 상주, 나주), 단감, 가공 밤, 파프리카, 포도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함
	채소류	양파(가공용), 파프리카, 딸기 - 양파(가공용) 및 파프리카는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 감, 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라서 호주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이 가능함 - 양파(가공용): 감부기병 무감염 증명 - 파프리카: 온실에서 생산, 온실·선과장 등록 - 딸기는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라서, 농가·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재배지검사(실험실 정밀검사),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소독처리 등 호주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이 가능함
	종자류	고추, 무,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오이, 참외, 파, 호박 - 박과류 종자는 정밀검사 후, CGMMV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PC 부기 - 토마토 및 고추류 종자: 특정 병해충에 대해서 승인된 검사방법으로 무감염 증명 후, PC 부기 또는 도착지에서 검사
	버섯류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만가닥, 목이, 흰목이 - 버섯류 재배매체는 동물 및 동물성 부산물이 없어야 하며, 121℃에서 30분간 소독 처리한 후, PC에서 부기
	절화류	장미,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 장미 등 증식이 가능한 것은 활력제거 처리 및 부기, MB 의무 훈증
	화훼류 기타	선인장, 포인세티아, 시클라멘, 아이비 등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KATI

Ag 2030 계획

호주는 농림수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한 'Ag 2030' 계획을 발표했으며, ①무역 및 수출, ②농가 지원 및 관리, ③공급체인, ④생물다양성 확보, ⑤인프라 구축, ⑥혁신 및 연구, ⑦인적자원 등 7가지 영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계획의 주요 골자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규제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지며, 공정하고 탄력적인 식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임
- 호주 동식물을 외부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함
- 수자원 시설 또는 통신 및 교통 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며 농업 혁신을 위해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함

원산지 및 자국산 중시

호주 소비자들은 식품안전(Food Safety)에 민감하며 식품 또는 식재료 소비에 대해서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냄. 식품 구매 시, 식품을 구성하는 재료 및 성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배, 양식, 가공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관심사임

제품 구매 시, 호주 생산 및 제조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으로, '호주산(Made in Australia)'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로고 및 라벨을 확인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도 함.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호주는 소비자의 건강,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또는 검역을 통해서 통관을 진행하는 등의 수입식품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편임

III

유통




01 유통구조

유통구조

큰타리버섯이 포함되는 신선 식품은 슈퍼마켓과 할인점 등 식료품 소매점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음

- 2022년 소매 판매액 기준 소매 유통과 비소매 유통은 전체의 각각 전체의 96.1%, 3.9%를 차지함. 소매유통은 다시 식료품 소매점, 비식료품 소매점, 기타 비식료품 소매점으로 구분되며, 2022년 소매 판매액 기준 식료품 소매점 유통이 전체의 96.0%를 차지함. 식료품 유통의 세부 유통채널별 시장 점유율은 슈퍼마켓(58.0%), 식음료 담배전문점(15.2%), 할인점(11.7%) 순임

따라서 신선 버섯 제품의 주요 유통채널인 슈퍼마켓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지원 기업의 요청사항인 한인마트/아시안마트, 온라인 유통채널도 조사 범위에 포함함

 표 23 신선 버섯제품 유통채널별 시장 점유율 추이(2018-2022년)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점포 소매	식료품 소매점	96.4	96.5	96.3	96.3	96.0
	- 슈퍼마켓	58.1	58.2	58.7	59.1	58.0
	- 식음료 담배전문점	15.7	15.9	15.4	15.1	15.2
	- 할인점	11.2	11.3	11.4	11.5	11.7
	- 소형현지식료품점	8.4	8.2	8.1	8.1	8.4
	- 편의점 유통채널	3.0	2.9	2.7	2.5	2.7
	비식료품 소매점	0.2	-	-	-	-
	기타 비식료품 소매점	0.1	0.1	0.1	0.1	0.1
	- 직접 판매	0.1	0.1	0.1	0.1	0.1
점포 소매 합계	96.7	96.6	96.4	96.3	96.1	
무점포 소매	온라인	3.3	3.4	3.6	3.7	3.9
총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02 주요 유통채널 분석

1. 슈퍼마켓/하이퍼마켓

2021년 호주 전체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업체의 매출액은 1,081억 6,950만 호주 달러(95조 2,237억 원)를 기록함. 그 중 Woolworths Group은 2021년 점유율 38.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함

- 그 외, Coles Group(31.9%), Aldi Group(10.3%), Metcash(7.2%) 순임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상승하면서 호주 내 유일한 할인점 브랜드인 알디(Aldi)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알디의 PB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품질 또한 갖춘 좋은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표 24 주요 하이퍼마켓·슈퍼마켓 기업 현황(2021년)

(단위: %)

순위	업체명	2021년 점유율	산하 주요 하이퍼마켓·슈퍼마켓 브랜드
1	울워스그룹 (Woolworths Group)	38.8	울워스(Woolworths)
2	콜스그룹 (Coles Group)	31.9	콜스(Coles)
3	알디그룹 (Aldi Group)	10.3	알디(Aldi)
4	멧캐쉬 (Metcash)	7.2	아이지에이(IGA)
5	오스트레일리안 유나이티드 리테일러스 (Australian United Retailers)	2.4	푸드웍스(FoodWorks)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주요 유통채널: 하이퍼마켓/슈퍼마켓

1. 울워스

	기업명	울워스(Woolworths)	
	기업 구분	하이퍼마켓/슈퍼마켓	
	홈페이지	www.woolworths.com.au	
기업 기본 정보	기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4년 설립된 호주 시장 점유율 1위의 슈퍼마켓 체인 - 울워스메트로(Woolworths Metro) 등 소형 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약 14개 매장이 '현금 없는 매장(Cashless Store)'으로 시범 운영 중 - 2020년 음료 및 주류 배송 기업인 쇼티스리큐르(Shorty's Liquor)를 인수함 - 신선식품의 96%, 특히 육류의 경우 100%를 호주의 현지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음 - 2020년 기준 매출액: 672억 7,800만 호주 달러 - 2020년 기준 직원 수: 약 21만 명 - 2021년 기준 점포 수: 약 1,000개 	
입점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및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하단 'Suppliers' 클릭 - 'Start your application now' 클릭 후 지원서 작성 - 입점 등록 절차: ① 지원서 제출 → ② 지원서 검토 → ③ 카테고리 매니저 개별 연락 → ④ 추가 정보 제공 → ⑤ 공급자 계약서 동의 2. 입점 등록 조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사업번호(ABN) 또는 뉴질랜드 사업번호(NBN) 보유 - 신선식품의 경우, WOA(Woolworths Quality Assurance Standard) 기준 충족 - 제품 공급 개시 시점까지 GTIN 번호와 해당 바코드 번호 보유 - 최소 유통기한 충족, 안정성 자격 충족, 최소 재고 보유 등 	

2. 콜스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콜스(Coles)	
	기업 구분	하이퍼마켓/슈퍼마켓	
	홈페이지	www.coles.com.au	
기업 소개	기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회사인 콜스그룹(Coles Group)은 소규모 매장인 콜스익스프레스(Coles Express), 주류 판매점인 리큐르랜드(Liqorland), 콜스로컬(Coles Local) 등의 다양한 오프라인 소매 유통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 공급 매니지먼트 플랫폼인 Supplier Ethical Data Exchange를 도입하여 엄격한 안전 및 위생 기준, 윤리적 소싱 규정을 공급자에게 요구함 - 2020년 기준 매출액: 386억 호주 달러 - 2021년 기준 직원 수: 약 11만 2,000명 - 2021년 기준 점포 수: 약 800개 	
입점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및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자 플랫폼 레인지미(Range Me)를 통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인지미 계정 생성 후, 브랜드 프로파일 및 제품 페이지 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자 정보: 기업연수, 매출액, 산업 카테고리, 브랜드 이름, 위치 등 2) 공급 제품 정보: 제품군, 브랜드 이름, 제품명, 제품 사진, 판매 가격 - 콜스(Coles)에 제품 및 브랜드 프로파일 제출(rangeme.com.coles) 2.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61-2-9199-8530 - 이메일(온라인몰): coles.eccommerce@coles.com.au - 공급자 포털: suppliercentral.coles.com.au/s/knowledge-centre/article/RANGEme 	

2. 아시안/한인마트

호주 내 아시아계 소비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안/한인마트 수가 증가하고 있음. 호주 현지의 주요 아시안/한인마트에는 하나로마트(Hanaromart), 케이에프엘슈퍼마켓(KFL supermarket) 등이 있음

호주에서 한국 식품은 현지 대형 유통채널보다는 주로 아시아계 식료품점 및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한식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호주의 주요 하이퍼마켓/슈퍼마켓 업체인 푸드웍스(FoodWorks)는 한국 식품의 입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호주 내 주요 아시안/한인마트인 하나로마트의 주요 거점 지역은 퀸즐랜드이며, 2021년 기준 호주 내 2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케이에프엘슈퍼마켓과 크라운아시아의 주요 거점 지역은 빅토리아이며, 호주 내 각각 12개, 4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표 25 주요 아시안마트/한인마트 업체

구분	기업명	기업 구분	주요 거점	매장 수(2021년)
1	하나로마트 (Hanaromart)	오프라인	퀸즐랜드	20개
2	케이에프엘슈퍼마켓 (KFL supermarket)		빅토리아	12개
3	크라운아시아 (Crown Asian)		빅토리아	4개
4	케이티마트 (KT Mart)		빅토리아	3개
5	비스토어 (Bestore)		퀸즐랜드	1개
6	케이오마트 (KOMART)	온라인	뉴사우스웨일스	1개
7	모아샵 (Moashop)		뉴사우스웨일스	-
8	제니마켓 (Jenny Market)		뉴사우스웨일스	-

자료: 기업 홈페이지

주요 유통채널: 한인마트

1. 하나로마트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하나로마트(Hanaro mart)	
	기업 구분	아시아마트/한인마트	
	위치	퀵랜드	
기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퀵랜드주 최대의 한인마트 유통채널 - 대형 쇼핑몰 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뛰어나 - 자사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신제품 및 제품 할인 행사 정보를 제공 중이며, 워챗 계정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보유함 - 2021년 매장 수: 20개 - 홈페이지: www.hanaromartonline.com 		
입점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및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을 통한 직접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자 정보 (공급업체명, 이름, 연락처, 연락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2)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원산지) (3)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2.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61-7-3012-7775 - 이메일: hanaromartau@gmail.com - 워챗: @hanaromartau 	


2. 케이티마트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케이티마트(KT Mart)	
	기업 구분	아시아마트/한인마트	
	위치	빅토리아	
기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설립된 호주 내 아시아마트/한인마트 유통채널 - 홈페이지 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제공함 - 2015년부터 온라인몰을 개시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요일별로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 상이함 - 빅토리아 주 멜버른과 미침에서 매장을 운영 중임 - 2020년 호주 배달 서비스 제공 업체인 오지헬퍼(Ozihelper)와 파트너십을 맺고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임 - 2021년 기준 매장 수: 3개 - 홈페이지: www.ktmartmall.com.au 		
입점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및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메뉴 Contact 클릭 - 양식대로 정보를 기입한 후 제출 - 홈페이지 기입 정보(담당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2.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ktmartmall@outlook.com - 전화번호: +61-478-801-827 	

3. 온라인

호주 내 온라인 매출액 기준 2021년 점유율 1위 기업은 울워스 그룹(9.3%, 매출액 591억 8,670만 호주 달러)이 차지함. 2위는 약 4.8%의 점유율로 웨스파머스가 차지함

코로나19와 함께 호주 온라인 유통채널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함. 호주는 국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을 갖고 있어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더뎠으나, 코로나19로 호주 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2020년 온라인 유통채널,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44.5%, 61.8% 성장함. 알디(Aldi)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의 온라인몰은 향후에도 지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표 26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단위: %)

순위	업체명	2021년 점유율	산하 주요 하이퍼마켓·슈퍼마켓 브랜드
1	울워스그룹 (Woolworths Group)	9.3	울워스(Woolworths)
2	웨스파머스 (Wesfarmers)	4.8	오피스웍스(Officeworks), 캐치닷컴(Catch.com), 타겟(Target)
3	이베이 (eBay)	4.8	이베이(eBay)
4	콜스그룹 (Coles Group)	3.9	콜스그룹온라인(Coles Group Online)
5	아마존닷컴 (Amazon.com)	3.1	아마존(Amazon)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1. 아마존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아마존(Amazon)	
	기업 구분	온라인 종합 쇼핑몰	
	홈페이지	amazon.com.au	
기업 소개	기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내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로, 2021년 호주 아마존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100% 증가함 -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임 - 2021년 기준 매출액: 4,698억 2,200만 달러 	
	입점 등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셀러를 위해 아마존은 입점 절차를 다음의 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 직접 판매를 원할 경우, 다음의 링크를 참고 - sell.amazon.co.kr 	

2. 이베이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이베이(eBay)	
	기업 구분	온라인 종합 쇼핑몰	
	홈페이지	ebay.com.au	
기업 소개	기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미국에서 설립된 호주 내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중 하나이며, 현재 글로벌 30여 개국에서 온라인 유통채널을 운영 중임 - 3자 판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종합 쇼핑몰임 - 시즌별, 시간대별, 카테고리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회원을 위한 무료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매출액: 104억 2,000만 달러 	
	입점 등록 절차	<p>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정 생성 후, 판매자(Seller) 등록 - 템플릿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소비자 가격 등 3)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 개인판매자와 스토어판매자 중 선택하여 입점. 개인판매자는 40개까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는 건당 10.9%임. 스토어판매자는 25만 개까지 제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건당 수수료는 4.8%임 	

IV

통관 및 제도



01 통관 및 검역

한국 수출 통관 절차

출항 전 보고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정식 수출신고와 목록통관으로 구분됨

수출신고 서류 준비

- ① 정식 수출신고:
 - 목록통관절차 적용 대상 이외 물품의 수출
- ② 목록통관:
 -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물품의 수출 절차
 - 목록통관은 일반적인 특송 업체 또는 우체국 EMS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임
 - 대상은 일반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FOB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의미하며 카탈로그, 서류, 외교행낭 물품 등이 있음
- ③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정식 수출신고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간이한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 FOB 200만 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쉽게 변환하여 기존의 수출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반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 수출 통관 절차도



서류 구비

수출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Invoice
-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전략물자 자가판정서(필요 시)

수출신고 전 확인 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행 여부 검토: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시
- 환급 대상 여부: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유리한 환급방식 검토 및 선정
- 수출 물품의 HS CODE 검토: 정확한 수출신고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원산지증명서 등을 위한 검토
- 물품의 소재지 확인: 수출신고 예정물품의 검사를 위해 수출신고 시점의 물품 소재지 확인 필요

수출신고

- 수출 화주로부터 전달받은 Invoice, Packing List를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관세청 UNI-PASS에 전자 접수
-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현품검사 또는 자동수리(Paper Less; PL)로 통지됨

세관 심사

- 위의 수출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세관의 심사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현품검사가 이루어짐
- 서류심사의 경우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 상 일치 여부를 확인함
 - 현품검사의 경우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지 또는 적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선(기)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호주 수입 통관 사전 절차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발급

(1) 개요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신고를 진행해야 함. 호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임

(2) 비거주자 GST 등록 대상

비거주자로서 호주의 GST 등록 의무대상은 다음과 같음. 다만, 모든 판매가 온라인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등록할 필요 없으며, GST 등록 시 12개월간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호주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연간 7만 5,000호주 달러인 경우(매출액에는 소비자 대상 1,000호주 달러 이하의 소액 판매와 수입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 판매를 포함함)

(3) GST 등록 방법

GST 등록에는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처럼 간이(Simplified)와 일반(Standard) 두 가지가 있음. 다만, 온라인, 직접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호주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는 비거주자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 등록을 사용할 수 없음. 이런 경우에는 일반 등록을 이용해야 함. 또한, 간이 등록의 경우에는 ABN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 등록의 경우에만 ABN을 발급받아야 함

(4)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발급 절차

외국에서 ABN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후 Reference Number를 확인하여 아래의 "Cover Sheet" 서류에 해당 번호를 기재하고, 호주 국세청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함. 아래 서류는 ABN 발급 절차 링크¹⁾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함

- 신분증명서(proof of identity)
- 영업활동 신고서(a statement of your business activities in Australia)
- 비거주자 ABN 신청서(Non-resident ABN application - certified identity documents cover sheet)

1) 링크

www.abr.gov.au/business-super-funds-charities/applying-abn/abn-businesses-outside-australia

수입 허가
(Import Permit)

호주 검역 규정(Quarantine Act 1908)에 따르면, 모든 식품 관련 수입은 수입 시 검역 규정을 통과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수입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신선한 과일 및 야채, 유제품, 달걀 및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경우, 식품 수입 전 수입 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함. 호주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Forestry) 산하의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웹사이트에서 'Import Conditions'을 통해 수입 물품별 허가 필요 여부 및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버섯 수입 요건

① 식용으로 허용된 식용 버섯종 확인

- 호주로 버섯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2022년 11월 10일부터 발효된 식용으로 허용된 신선한 버섯종 목록에 게재되어 있음. 해당 리스트는 BICON 웹사이트²⁾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호주로 수입이 금지된 버섯종 목록은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ANZSC Schedule 2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가리쿠스 버섯(*Amanita muscaria*), 진균류(*Clitocybe* spp) 등이 있음

② 수입 허가

새송이버섯은 농림수산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ANZSC, 첨가물 기준, 식물위생증명서 제출 등 새송이버섯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③ 식물위생증명서

㉠ 개요

- 식물위생증명서는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기타 규제 품목이 호주의 식물 위생 수입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 국가의 국립식물보호국(NPPO)에서 발급된 문서를 말함
- 버섯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동물 부산물이나 배설물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 식물 위생 증명서 부기사항(Additional declaration)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문구를 제시해야 함
 - "The product was harvested in the wild and are not cultivated."
 - "The product was grown on a substrate totally free of animal products including animal by-products and faeces, and has not been subsequently contaminated with animal by-products or faeces."
 - "The product was grown on a substrate which was autoclaved at a gauge pressure of 105 kPa (15 psi) to achieve a minimum substrate temperature of 121°C for 30 minutes and has not been subsequently contaminated with animal by-products or faeces."

수입 허가
(Import Permit)

㉠ 요건

-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
- 발급 기관의 대표가 승인할 것
- 영어로 작성될 것 그러나 ISPM 12에 따라 IPPC에서 인정하는 언어 중 하나로 작성 가능
- 발급 국가의 국립 식물 보호 기구(NPPO)에서 발급해야 함

필수 정보

- 발급 기관
- 패키지 번호/수량 및 설명
- 원산지국
- 최종 목적지 국가의 최초 도착지
- 수입국
- 식별 마크
-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 상품의 설명과 수량
- 수입국의 NPPO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취인의 세부 정보(이름과 주소 등)
- 필수 문구: "여기에 기술된 식물, 식물성 제품 또는 기타 규제 품목이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사되었으며 수입계약 당사자가 지정한 검역 해충이 없고 규제 비검역 병해충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 계약 당사자의 현재 식물위생 요건"
- "해상, 항공, 도로, 철도, 우편 및 여객"과 같은 신고된 운송수단
- 속 또는 종 수준까지 식별 가능한 승인된 학명

식품첨가물 확인

- 호주로 수입되는 버섯은 식품 표준 코드 1.3.1 및 Schedule 15에 따라 허용되는 첨가물 및 최대 허용량을 충족해야 함. 만일 표면처리가 되었다면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최대허용량은 다음과 같음
- 관련 규정은 식품기준청(FSANZ) 웹사이트³⁾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링크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ViewElement/Element/Index?elementPk=1980350&caseElementPk=2008020>3) <https://www.foodstandards.gov.au/code/Pages/default.aspx>

물질명	최대허용량(MPL)
인산 암모늄	GMP
지방산 모노-디글리세라이드	GMP
슈크로스에스터류	100mg/kg
밀랍(노란색, 흰색)	GMP
카바우와 왁스	GMP
셀락	GMP

수입 허가 (Import Permit)

유해물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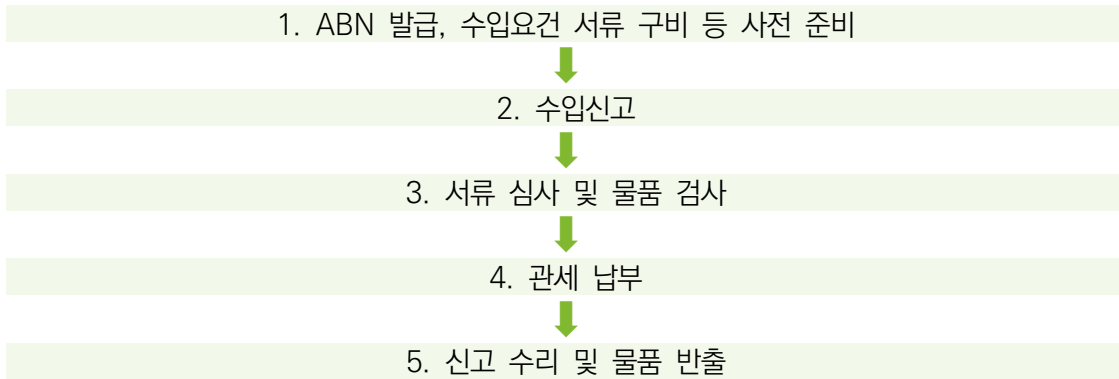
- 호주로 식품 수출 시 적용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규정은 식품 표준 코드 1.4.1 및 1.4.2에서 규정하고 있음. 호주 내 수입 식품은 해당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 관련 규정은 식품기준청(FSANZ) 웹사이트⁴⁾에서 확인할 수 있음

Client 등록

- 호주 통관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Form B319(Client Registration Form)을 작성하여 ICS에 Client로 등록해야 함

4) <https://www.foodstandards.gov.au/code/Pages/default.aspx>

호주 수입 통관 절차



수입 신고

호주에서 물품을 수입 통관하려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세사를 이용하거나 ICS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수입신고 종류		내용
간이수입신고 (SAC, Self-Assessed Clearance)	Short format SAC	해상 또는 항공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 이하인 경우(수입 허가가 필요한 화물을 이용할 수 없음)
	Long format SAC	해상 또는 항공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 이하인 경우로서 관세 감면 및 양허세율의 적용,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Nature10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를 초과하며 호주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경우(일반적인 수입신고 형태)	
Nature20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를 초과하며 수입통관 전 창고에서 보관하는 경우	
Nature30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를 초과하며 창고에서 보관하기 위해 N20으로 신고 후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통관 하려는 경우	
Nature10/20	하나의 화물에 국내 소비용과 창고 보관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버섯은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Short SAC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하려는 화물의 가격에 따라 N10 또는 Short/Long SAC을 통해 수입신고가 가능함

제출 서류

호주에서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버섯의 경우 HS CODE, 수량, 가격, 운임, 보험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수입신고서
- 운송서류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원산지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허가서 또는 승인서(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EOI; Evidence of Identity)

물품 검사

ICS에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녹색신고(Green line), 황색신고(Amber line), 적색신고(Red line)로 분류되어 처리됨. 녹색 신고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하나, 품목 분류, 검역 정보, 가격이 송품장 내용과 다른 경우 적색신고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짐. 위장 수입 물품이나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황색신고로 분류되어 정밀 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됨

구분	내용
녹색신고 (Green line)	추가적인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수입자 혹은 대행업체가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됨.
적색신고 (Red line)	품목분류의 오류나 검역 대상 물품이 적절한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가격이 송품장 내용과 다른 경우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황색신고 (Amber line)	위장 수입물품이나 관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물품, 마약 및 수입금지 또는 제한 물품 혹은 이와 같은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

식품 검역

호주 수입 식품은 생물보안법 2015에 따른 호주의 생물보안 규정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관장하는 호주 식품안전기준(Australian Food Safety Standards)을 준수해야 함. 이를 기반으로 Risk food, Surveillance food 등으로 구분하여 검사가 진행되며, 카테고리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식품별 기준은 FSANZ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위험 식품 (Risk Food)	호주 검사규약에 따르면, 인체에 중-고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식품 제품군을 위험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생물 및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식품군이 대상임. 위험 식품으로 규정된 식품들은 100% 검사가 진행되며, 5번 연속으로 검사를 통과할 경우 25%의 확률, 25번의 검사를 통과할 경우 5%의 확률로 검사가 진행됨. 호주 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들 식품은 즉시 반송 혹은 폐기되며, 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판매가 불가능함
감시 식품 (Surveillance Food)	위험 식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식품 제품군은 모두 감시 식품으로 규정되며, 이는 인체에 저 위험도 식품으로 구분됨. 이들 제품군은 5%의 확률로 검사가 진행되며, 저 위험도로 구분됨에 따라 검사 결과 확인 전에 판매가 가능함. 만약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을 경우, 수입자 부담 하에 수입한 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해야 함

관세 납부

화물 가격이 1,000호주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음

화물 반출

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 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이후 물품 반출까지는 최소 15시간(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며, 물품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02 인증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선택)

1. 개요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와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s)의 영문 약자로, 해썬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함

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함

- 국제 인증 규격인 HACCP 인증을 받음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향상하고 및 지속시키고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호주로 수입되는 딸기 및 석류 등 특정 식품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었음을 보장하는 HACCP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나 버섯은 HACCP인증이 강제가 아님. 따라서 필수가 아닌 선택에 해당함

2. 대상 품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생산 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 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함

1)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등

2) 축산품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가공·보관·운반·판매업
- 가축사육업
- 사료제조업 등

3. 인증 절차⁵⁾

1. HACCP 시스템 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 ↓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는 제품기술서와 공정흐름도 작성
- ↓
3. 생산공정 각 단계와 도출된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서 위험을 평가
- ↓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Critical Control Points)을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관리사항(POA)을 파악
- ↓
5. 모든 위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한계치 설정 및 모니터링

4. 제출 서류

HACCP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HACCP 신청서
 - 식품인 경우 전품목 전업종 인증심사비용은 20만 원임
-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치 및 검증 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
- 영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등 사본
- 영업신고필증
 -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의 종류, 실제 운영 면적이 확인되어야 함
- HACCP 교육수료증
 - 경영인 과정(94시간 이상): 대표자
 - 종업원 과정(24시간 이상): 직원 중 1인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일일 위생 점검기록, 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 기록
 -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서에 따른 서류

5) 식품제조업체 HACCP 적용절차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Introduction.do?tp=5>

5. 인증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HACCP 인증절차 및 검사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HACCP은 식품, 축산물, 사료의 세 종류로 나뉘며 식품과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6. 의무 적용 대상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용 식품이 확대됨. 기존에는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으나, 12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2) 대상 식품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 연체류: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 면을 냉동한 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류 중 빙과
- 음료류(커피류는 제외한다)
- 레토르트식품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국수: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이 아님
-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3) 유예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년 유예함. 다만,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4) 행정처분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선택)

1. 개요

‘농산물 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현재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함

2. 대상 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HACCP은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안전 관리 인증기준으로 수산물, 축산물, 식품업체 가공업이 대상이며, GAP은 식용 가능한 농산물이 대상임. 적용 대상이 식용 가능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인 GAP과는 차이가 있음

3. 인증 절차

1.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와 기본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계획서를 구비하여 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함



2. 인증기관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심사원 편성, 일정확정, 심사대상 선정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 일정을 통보함



3. 인증심사원은 접수 후 42일 이내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이력 추적 관리 여부 등의 사항들을 서류 및 현지방문하여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함



4. 인증 기관은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 농가에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표시 및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며 부적합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보함



5. 인증 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해 생산 과정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함

〈신청 시기〉

신청 대상 농산물이 인증 기준에 따라 생육 중인 농산물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 포장에서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 계획 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인 시기에 신청

4. 제출 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

-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유의 및 준수사항
 - 팀 구성원이 농산물우수관리(GA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과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생산계획 및 이용할 수확 후 관리시설을 기재함
 - 품목별 재배작기는 생육중인 농산물과 생육계획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기재함
 -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충분히 도출하고,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위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을 도출하여야 함
 - 중요관리점 결정도에 따라 중요관리점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함
 - 설정된 한계기준은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점검 담당자가 설정된 한계기준을 잘 숙지하여야 함
 - 점검 방법은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적절하게 문서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져야 함

5. 취득 비용

GAP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수수료 + 심사원 출장비 + 토양·수질·잔류농약 분석비를 인증신청서 접수 시 납부

항목	수수료(원)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50,000원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30,000원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20,000원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심사원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

-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 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함
- 일비·식비·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식비·숙박비를 징수함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인증신청서 접수 시 현금 또는 지로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납하되,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보완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 심사원 출장비는 신청자에게 반환함
 - 출장 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되, 건당 농가 수가 많아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 적용. 출장 인원은 2인 이하로 함

토양·수질·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함

(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

6. 인증 기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민간 인증 기관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 기관으로 지정함

7. 위반자에 대한 조치

행정처분

① 시정명령 등의 처분 기준

인증농산물이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 정지를 할 수 있음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	-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전업, 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취소	-	-

위반행위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 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인증취소	-	-

행정처분

①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농수산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품질관리법제31조제1항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음

②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9조)

-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0조)

-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03 라벨링

주요 라벨링 표기 사항 상세

1. 라벨링 필수 표기 사항

라벨 표기 사항(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정보 함유량(%) 표기 제품명 제품 반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레르기 유의사항 식품 기한 표시 재료 목록 정확한 정보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첨가물 가독성 사용기준 및 보관방법 원산지

자료: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KATI

번호	구분	설명
라벨 표기 사항(가이드)		
1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혹은 식품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함 제품명은 잘못 이해할 수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2	로트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트번호는 제품의 리콜 시 활용 목적으로 작성해야 함 아이스크림이나 대용량 패키지 안에 포함된 소포장 제품에 대한 로트번호 표기는 생략이 가능함
3	공급업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또는 뉴질랜드 공급업체(제조사, 수입자 등)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함 주소는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실제의 주소로 작성해야 함
4	경고문, 권고문 및 선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섭취 시, 건강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등 경고 표기는 필수임 분명하고 영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작성되어야 함 특정 성분을 포함하는 과잉 섭취가 완화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권고문이 필요함
5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명은 일반명이나 원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형태의 혹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름으로 해야 함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을 포함해 함량 내림차순으로 원료 정보를 나열해야 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10가지에 대해 포장재에 라벨링 박스 안에 표기해야 함
6	보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법 혹은 보관방법을 표기해야 함
7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st-Before' 혹은 'Use-By'로 표기해야 함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인 경우, 일, 월, 연도순으로 표기해야 함
8	영양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강조 표시가 아닌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나트륨 정보를 표기해야 함 제품의 평균 1회 섭취량(g 혹은 ml)과 제품의 섭취 횟수를 표기해야 함 제품의 1회 제공량과 총 제공횟수 및 해당 제공량당 에너지 함량을 표기해야 함(kj 혹은 kcal) 트랜스 지방, 다중 및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9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미료 제품은 'Made In'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10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벨은 영어로 작성해야 함 영양 성분의 강조 표시는 식품의 형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시되어야 함 식품 제조 기업이나 재포장 기업은 제품과 특정 국가 간의 연결을 암시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식품 포장에 단어 혹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로고, 기호 또는 사진을 추가할 수 있음. 단, 제품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고 진실하며 정확해야 함

자료: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KATI

04 위생 요건

식품 첨가물 규정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홈페이지⁶⁾에서 식품 첨가물/유해물질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식약처에서도 식품법 관련 문서를 번역본으로 제공하고 있음. 호주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일반적으로 자체식품으로 섭취하지 않고,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나 1가지 이상의 기술적 역할을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로 정의함. 식품에 부산물이 남을 수 있으며, 식품의 영양 측면을 목적으로 첨가되는 가공보조제, 비타민, 미네랄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물질임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⁷⁾에서 버섯(소금이나 물에 담금 처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살균 처리하지 않은 버섯에 한함)과 관련된 식품첨가물을 검색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수출 시점에 정확한 식품첨가물의 사용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물질명: Sorbic acid and sodium, potassium and calcium sorbates, 최대허용량: 500mg/kg
- 물질명: Benzoic acid and sodium, potassium and calcium benzoates, 최대허용량: 500mg/kg


6)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https://www.foodstandards.gov.au/code/Pages/default.aspx>

7)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F2008B00614/Amendments>

잔류 농약 허용치

신선 버섯의 호주 잔류농약 허용치는 다음과 같음

- 하기 표의 예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KATI를 참고하여 예시를 든 것이며, 수출 시점에 정확한 잔류 농약 허용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27 버섯 제품에 적용되는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유해물질명	식품 유형	잔류 허용기준(ppm)
Azaconazole	버섯	0.1
Cyromazine		10
Dichlorvos		0.5
Flubendiamide		5
Indoxacarb		2

자료: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KATI농식품수출정보

알레르겐

호주 농업부(DAWE)⁸⁾의 발표에 따라 필수 알레르기 항원 경고문의 표시 규정 및 감시 식품 검사기준이 변경됨. 호주 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항원 11개를 지정했으며, 해당 성분을 함유한 식품은 이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 11가지 성분: 어패류, 땅콩, 나무 견과류, 유제품, 계란, 깨, 대두, 루핀(Lupin), 밀, 글루텐, 아황산염(10mg/kg)
- 표기 시, 굵은 글씨체를 사용해야 하며, 알레르기 항원을 기재할 때 항원명, 출처 등에 지정된 용어만을 사용해야 함
- 또한, 연체동물과 개별 견과류, 밀·보리·귀리 혹은 이들의 혼합물 및 글루텐 등 특정 알레르기 항원은 함유 사실을 라벨링에 별도로 표시해야 함

8) DAW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V

시사점



01

수출 확대 방안

시장 여건

호주의 기타 채소의 판매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5.2%를 나타내며 120억 8,770만 호주 달러(10조 6,410억 원)를 기록했으나 판매량은 0.9% 증가에 그쳐, 기타 채소 시장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호주에서 버섯이 육류 대체 식품,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어, 부족한 공급량을 수입 버섯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호주 큰느타리버섯 수입 규모가 2017~2021년 기간 동안 연평균 6.2% 증가하여 위 추측과 일관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호주 큰느타리버섯 수입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2017~2021년 기간 동안 연평균 7.8% 성장하고 있어, 한국 느타리버섯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수출 가능성 진단 및 전략

호주에서도 버섯은 익숙한 식재료이나 새송이버섯 및 팽이버섯은 이국적인 식재료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새로운 종류의 버섯을 활용한 메뉴 및 요리 방법을 알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재료 사용이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함. 특히, 새송이버섯은 조리가 필요한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더 중요함

- 참고 사례) 국내에 뉴질랜드 호박 수입이 시작되었을 때와 유사

호주 방송에서 소개된 새송이버섯 활용 요리 예시처럼 유명 먹방 유튜버, 해외 식품을 소개하는 유튜버, 요리하는 주부 유튜버, 음식에 조예가 깊은 연예인 유튜버 채널 등을 활용하여 조리 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에는 K-푸드에 관심이 많은 소비군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에서 새송이버섯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는 것도 필요함

- 예) 삼겹살을 먹을 때 새송이버섯을 함께 굽는 방법 등

이미 한국산 새송이버섯이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한국산 새송이버섯과 차별성을 두기 위한 정책은 무의미하며, 호주 소비자에게 한국산 새송이버섯 자체를 알리고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따라서 기존의 새송이버섯 수출업체 간 협력을 통해 한국 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동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제안함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1. Euromonitor International
2. ITC
3. 농식품수출정보(KATI)
4. 호주 통계청(ABS)
5. FAO
6. www.woolworths.com.au
7. www.coles.com.au
8. www.hanaromartonline.com
9. www.ktmartmall.com.au
10. amazon.com.au
11.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12.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발행 겸 편집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 일자 2023. 03

- 본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본문 내용 중 문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